

가족 행사 ... 그리고 그 이상

퍼스트 스텝스의 올해 북한 여름 방문은 후원자 대표단 수가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넘은 큰 행사였습니다. 대표단은 수잔 리치와 남편 Bob Ross, 아들 Hamish (12)와 Sammy (7), 수잔의 부모님 Florence, Earl Ritchie, 그리고 Mennonite Central Committee 동북 아시아 대표 Kathi Suderman과 딸 Stefanie, 퍼스트 스텝스 후원자 Deborah Harden과 딸 Jacquie였고 이들의 여행 경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참가자 부담이었습니다.

냉엄한 현실에 의해 깨어진 낙관과 희망

일주일이 흐른 것이 얼마나 큰 파국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요?

퍼스트 스텝스 방문단은 일주일간 퍼스트 스텝스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7월 30일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들판에는 곡식들이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7-12일까지 7일간 북한에 26인치나 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고 적어도 89,0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홍수는 또 농사에도 타격을 크게 주었고 광대한 경작지가 유실되거나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 특히 작고 힘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 알려 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들은 효과적이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4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수천명의 임산부와 유아들이 미량영양소인 스프링클스의 혜택을 받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자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봄 이래 퍼스트 스텝스는 중국에서 구매한 메주콩 100톤 가운데 50톤은 원산에, 30톤은 남포로 20톤은 형제산으로 보냈고 이번 방문에 잘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형제산에 보낸 메주콩 현금과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보내 주신 성금에 감사를 드립니다. 통천에 새 바이타 고트 설비를 위한 메주콩을 선물한 토론토의 Susan Cox 와 Eastminster United Church 성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메주콩을 보내기 위해 퍼스트 스텝스는 톤당 536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봄 수확이 나쁜 관계로 가격은 현재 560불입니다. 이 가격은 이번 여름 동아시아 홍수로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겨울 동안 설비 가동을 위해서 콩을 더 구입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더 축복하셨습니다. Mennonite Central Committee로부터 받은 최근의 후원으로 200톤의 메주콩을 현재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C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스프링클스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보낸 미량영양소 150만 봉지를 임산부들과 유아들에게 분배했고 100만 봉지를 더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2년간의 스프링클스 효능성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스프링클스를 먹고 식욕이 증가했고 빈혈이 있는 임산부들도 즉각적으로 조금이나마 차도를 보였습니다. 빈혈을 앓고 있는 3분의 1 가량의 북한 임산부들 가운데 많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바이타고트는 중국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이 시작되기 전 테스트 기간과 조정을 요합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우선 10대를 주문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바이타고트를 북한의 2500 협동농장에 각각 한대씩 설치하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최근 방문은 또 다시 퍼스트 스텝스 후원자들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수천의 생명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우리는 함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장 둔화와 영양실조로 점철된 세대인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Deborah 의 일기

7월 24일 (화)

우리 일행 10명은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는 작은 채소밭을 여러 곳에서 보았다. 내딸 Jacquie와 나는 저녁식사 전에 걸어서 주체 탑으로 가서 우리가 북한에 정말 왔다는 것을 증명하러 사진을 찍었다.

7월 25일 (수)

우리는 콩우유를 생산하는 형제산 근처 부지를 방문했다. 작업을 지도하는 여성들의 확고한 의지 덕분에 바이타카우 설비를 위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불행히도 그들은 지붕이 새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북한에서 항상 쉽지 않은 듯해 보였다.

7월 26일 (목)

남포로 가는 길에 우리는 갈천리 협동농장에 들러 바이타고트를 살펴보았다. 그곳에서는 설비를 잘 활용하여 하루 18시간 기계를 가동하여 2,200명의 어린이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남포에서 우리는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136명의 어린이와 52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콩우유를 공급하는 바이타카우가 있다. 그들은 기계를 사용하여 과일과 야채로 만든 이유식도 만들었다. 기계는 용도가 다양하고 메주콩 이외의 다른 식량을 가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7월 27일 (금)

남포 식량 생산 공장 직원들이 “승리기념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콩우유를 만들러 왔다. 그들은 네 대의 바이타카우로 매일 콩우유를 1.5 톤 내지 2톤을 생산한다. 부근의 병원에서 수잔은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를 복용하는 임신 여성 네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스프링클스를 먹고 있는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해 보였다. 오후에 우리는 원산 동해안 바닷가로 5시간 차를 타고 갔다.

7월 28일 (토)

우리는 통천을 방문하러 남쪽으로 향했고 도중에 아름다운 백사장 해변에서 수영을 했다. 통천에서 직원들은 오후 휴무시간에 새 바이타고트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러 왔다. 퍼스트 스텝스가 그곳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이 분명했으며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7월 29일 (일)

축구를 함께 하며 원산 고아원 어린이들과 가까이 지낸 오늘이 나에게서 여행 최고의 날이었다. 9살 10살 어린이들이 경기를 하며, 골을 넣는 것보다 동료 선수들을 더 배려하는 모습은 신사적이었다. 그래도 어린이들은 득점하는 것을 좋아했고 골을 넣으면 기뻐했다. 어린이들이 콩우유를 공급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 활기차고 피부병도 덜 생긴다는 말을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부터 들었다.

7월 30일 (월)

우리는 평양으로 다시 먼 길을 되돌아왔다. 수잔이 어린이 영양 연구소 사람들과 마지막 회합을 갖는 동안 우리는 관광을 했다.

7월 31일 (화)

우리는 귀향 길에 올랐다. 북한 방문은 나의 어머니, Marg Loden이 나에게 퍼스트 스텝스에 대해 말해 준 모든 긍정적인 말들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영양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일이 설비를 공급받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본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경험이었다. 나는 주기도문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을 말할 때마다 북한 어린이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